

7개월간 공식이던 광주 이동노동자 쉼터 ‘쉬소’ 개소

첨단 월계동 시리단길 인근 건물
오후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
대리기사·택배·방문판매원 이용
얼음물·커피·상비약 등 편의품 구비
시범운영 기간에만 150여명 찾아



이동노동자쉼터 ‘쉬소’에 비치된 냉장고 안에 얼음물이 가득 담겨 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따듯하고 식히고 물 한 잔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네요. 특히 1층이어서 너무 편합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유일의 이동노동자 쉼터 상무지구 ‘달빛쉼터’가 폐쇄된 지 7개월만에 새로운 휴식 공간이 개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첨단 월계동 시리단길 인근 단층 건물에 자리 잡은 ‘쉬소’가 그것이다.

이곳은 폭염·폭우 등 극한 날씨에도 외부에서만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만의 전용 휴게공간이다. 이미 입소문이 퍼져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은 시범운영 기간임에도 높은 방문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찾은 이동노동자쉼터. 이곳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13일 운영에 돌입했으며, 개소식만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자정이지만 건물 안은 환하다. 햇빛을

차용하고 전동스쿠터를 탄 대리운전노동자들이 하나둘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냉장고에서 얼음물과 커피를 꺼내 마시면서 땀을 식혔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장비를 챙겨 자리를 떠났다.

이곳에는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위한 상비약, 에어컨, 선풍기, TV 등이 구비돼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5~10분 가량의 짧은 시간만 머물렀지만 서로 답소를 나누며 피로를 푸는 모습이었다.

대리기사인 박모(54)씨는 “주변 동료 기사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쉼터를 이용해 본 기사들은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다”며 “짧은 시간 들렀다 나가지만 물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특히 여름철 무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지난 14일 자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쉬소’를 찾아 휴식을 하고 있다.

운 날씨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점이 맘에 든다. 개선할 부분을 요청하면 바로 반응을 해주고 있어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박모(60)씨는 “시범운영 기간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오고 있다. 상무지구에 있던 쉼터는 고층에 있어 불편했지만 이곳은 단층이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쿨 배정이 잘 되지 않는 시간대에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몸

을 누울 수 있는 간이침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박모(60)씨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면서 “보통 쉼터가 없을 때는 밖이나 편의점에서 대기를 했지만 쉼터가 다시 생겨 다행이다”고 말했다.

최규환(41)씨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변화가가 바로 옆에 있고 1층에 위치해 있

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상무지구에 있었던 쉼터도 이용을 했었지만 이번에 생긴 ‘쉬소’가 더 좋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내 이동노동자쉼터는 이곳 ‘쉬소’가 유일하다.

운영의 주체는 광주시이며 광주노동권익센터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까지의 서구 상무지구에 ‘달빛쉼터’가 있었지만 운영난과 8층에 위치해 시간이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7개월간의 준비 끝에 새로운 이동노동자 쉼터가 탄생했다.

‘쉬소’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동노동자로 등록된 이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월~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된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150여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광주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배달대행·대리운전노동자 등이 이용하는 단체 소통방을 통해 개소 소식을 알리고 인근 상점가와 공원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도 편하게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을 나눠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호남대 e스포츠학과, WGS와 손잡다

커리큘럼 공동개발·실습 확대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 협력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가 WGS 아카데미와 손잡고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4일 호남대에 따르면 e스포츠산업학과는 지난 10일 e스포츠 교육·컨설팅 기관 WGS 아카데미(공동대표 송도근·정주희)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커리큘럼 공동 개발과 실습 중심 교육 확대를 골자로 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협

력 기반의 실무형 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제공,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산업 동향 공유 등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WGS 아카데미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국내 e스포츠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부문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연철 학과장은 “호남대는 지역 e스포츠 산업의 거점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모델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높ی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단일 촬영으로 성분 분석… GIST 신기술

AI로 스펙트럼 복원 정확도 향상 센서 크기 4.5mm, 모바일 탑재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팀이 단 한 번의 촬영만으로 물질의 성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초소형 AI 분광 센서를 개발했다.

15일 GIST에 따르면 전기전자컴퓨터 공학과 이흥노 교수 연구팀은 다층 박막 필터 기반의 초소형 센서에 인공지능 복원 알고리즘을 결합해, 단일 촬영으로 500~850nm 범위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계산 분광기 기술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서 2022년 다층 박막 필터 구조를 CMOS 센서와 결합해 ‘단일 촬영 계산 분광기’의 하드웨어 구현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U-Net 기반 AI 알고리즘을 최적화해 측정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더욱 높였다.

이 기술은 기계적 스캔 없이도 필터 단위로 수집된 광학 데이터를 AI가 전체 스펙트럼으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고정밀·

저전력·소형화를 동시에 실현하며, 모바일 기기나 현장 진단 센서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효율적이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이산화타이타늄(TiO₂)과 이산화규소(SiO₂)로 구성된 36개의 박막 필터를 6×6 배열로 설계해 상용 CMOS 이미지 센서 위에 장착했다. 제작된 센서는 단일 촬영으로 파장 정보를 분산 측정하며, 이후 AI 복원 모델이 전체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재구성한다.

실제 학습에는 3223개의 스펙트럼 데이터가 사용됐고, RMSE 0.0288이라는 높은 복원 정확도를 달성했다. 측정 구조는 비스캐닝 방식으로, 별도의 기계 부품 없이 빠른 측정과 소형화에 적합하다.

이 교수는 “AI 알고리즘과 초소형 센서를 통합해 계산 분광기의 성능을 크게 높였다”며 “향후 거대언어모델(LLM)과 연계해 사용자에게 스캔 결과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기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병하기자

광주·전남 19일까지 비, 이후 다시 폭염

“침수 사전대비 필요”

광주·전남 지역에 19일까지 비가 내린 뒤 20일부터 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에는 10~60mm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이날 최저기온은 21~24도, 최고기온은 26도~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17일 역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어 1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으며 최저기온은 23~26도, 최고기온은 28~31도가 예보됐다.

이어 18~19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20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수증기량이 많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

폭염은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될 것

로 보인다. 하지만 20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다시 무더위가 재기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25일에는 최저기온은 24~26도, 최고기온은 20~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 많은 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지대 및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시교육청, 기능경기대회 ‘홈 이점’ 노린다

훈련 공유·지원체계 강화 추진 지도교사 간담회로 실전 대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최고 성적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년 만의 개최라는 점에서 ‘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취

업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지도교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능영재반의 훈련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교육 전략과 애로사항 해결 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동기 부여 방안과 실기 훈련 방식 등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예산 확보, 훈련 환경 개선, 학교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심화동아리의 내실화를 통해 준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도교사들과 함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전남교육청, 성취평가제 현장 지원 강화

호남권 컨설턴트 공동 연구 교과별 평가 컨설팅 집중

전라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전남·광주·전북교육청 소속 성취평가제 컨설턴트 85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를 실시했다.

전남에서는 21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성취평가제는 기존 석차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학생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연수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평가 실태를 진단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교육청·국가 간 3단계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우열 연구원이 ‘성취평가 컨설팅’ 강의를 통해 성취평가제의 개념과 운영 방향을 설명했으며, 오후에는 국·영·어·수·학·사·화·과 학 5개 교과로 나뉘어 분임 연수가 진행됐다.

각 교과별 연수는 단위학교의 실제 평가자료를 분석하며, 성취기준 도달 여부와 평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컨설턴트들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병하기자